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

◆ 차례 ◆

1. 문학의 빛깔

- (1) 서정 갈래의 이해
슬픔이 기쁨에게_정호승-----1쪽 (58문제)
- (2) 서사 갈래의 이해
달밤_이태준-----21쪽 (59문제)
- (3) 극 갈래의 이해
파수꾼_이강백-----55쪽 (58문제)
- (4) 교술 갈래의 이해
통곡할 만한 자리_박지원-----87쪽 (30문제)

2. 책 속에 길이 있다

- (1) 어떻게 읽을까
삶을 바꾼 만남_정민-----104쪽 (40문제)
- (2)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124쪽 (17문제)

3. 생각하고 표현하고

- (1) 글쓰기를 잘하려면-----131쪽 (29문제)
- (2)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149쪽 (24문제)

4. 소통의 힘

- (1) 읽고 쓰며 소통하기
이유 있는 여유_오은-----162쪽 (30문제)
- (2) 매체로 보는 세상-----180쪽 (13문제)

5. 바른 언어생활

- (1) 음운 변동-----185쪽 (61문제)
 한글 맞춤법-----202쪽 (65문제)

- ▶정답-----220쪽
- ▶해설-----223쪽

(버전: 2020.03)

슬픔이 기쁨에게_정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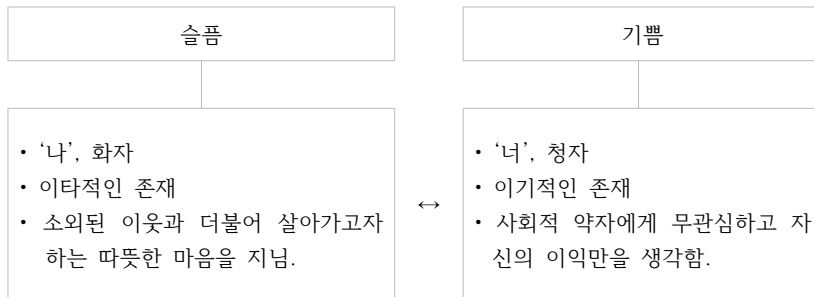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교훈적, 비판적, 의지적
제재	슬픔, 기쁨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특징	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②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③ 특정 음운, 어미, 음보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 작품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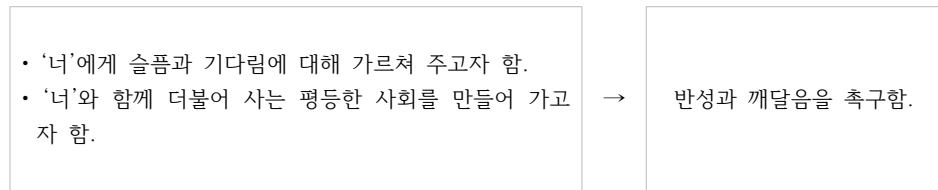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 '슬픔'과 '기쁨'의 대립적 속성



1-(1) 슬픔이 기쁨에게

■ 청자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 시상 전개 방식과 효과

화자('나', 슬픔)가 청자('너',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함.



소외된 이웃에 대한 청자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청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 시어의 상징적 의미

할머니, 동사자	주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
가마니 한 장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
함박눈	약자에게는 고통, 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
봄눈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감싸는 존재

■ 표현상의 특징

시어의 대비	슬픔과 기쁨이라는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대상의 의인화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인격적 특성을 부여하고,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역설적 표현	슬픔과 기쁨의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함.
'-겠다'의 반복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1-(1) 슬픔이 기쁨에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금촌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의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지적 어조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 ②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슬픔'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슬픔'이 '기쁨'에게 진정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일반적인 인식과 차별화된 작가의 인식을 토대로 시의 함축성이 나타나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2. 윗글에 나타난 화자와 청자의 의미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삶은 계란의 껍질이 /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푹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가에서」

- ②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침무우뱀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③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뿔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뭍가 손 돌아 파릇하고
 - 정지용, 「인동차」
- ④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 한용운, 「사랑의 측량」
- ⑤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 신동집, 「오렌지」

금촌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의 주제를 <보기>에 제시된 표현법을 사용하여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보기>

비유법의 하나로 연결이 없어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동일시하여 대상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표현법

- ① 함박눈 같은 슬픔
- ② 사랑은 뜨거운 연탄이다.
- ③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합니다.
- ④ 가난한 사람이라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 ⑤ 기쁨은 남에 무관심하나 슬픔은 이웃에 관심을 갖는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4.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추상적인 감정을 관념화하여 표현하였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겠다'라는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④ 여러 화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⑤ 시선의 이동과 원근(遠近)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5. 다음은 윗글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가)을/를 주고자 함.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나)을/를 주고자 함.
14~19행	슬픔의 (다)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자 함.

	그	느	드
① 슬픔	기다림	힘	평등
② 슬픔	함박눈	힘	평등
③ 기쁨	함박눈	힘	평등
④ 기쁨	봄눈	기다림	슬픔
⑤ 평등	기다림	슬픔	기쁨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6.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
- ②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③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 지네.
- ④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갈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⑤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를 나타낸다.
- ② ㉡ :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 :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
- ④ ㉢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의미한다.
- ⑤ ㉢ :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을 의미한다.

달밤_이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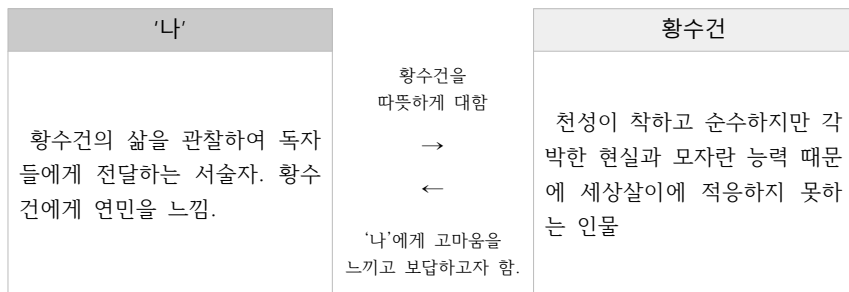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애상적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시간: 1930년대 일제 강점기 •공간: 서울 성북동
제재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한 인물의 삶
주제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특징	① 세밀하고 서정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제시함. ② 주인공에 관한 일들을 나열한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하고 있음. ③ 배경이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남김.

■ 작품의 구성

발단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그가 못난이임을 바로 알게 된다.
전개	정식 신문 배달부가 소원인 보조 배달부 황수건은 학교 급사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형님 집에 얹혀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 준다.
위기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 쫓겨난 황수건은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한다.
절정	황수건은 참외 장사마저 실패하고, 그의 아내는 가출한다.
결말	어느 날 밤 서툰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황수건을 목격한 '나'는 그에게 연민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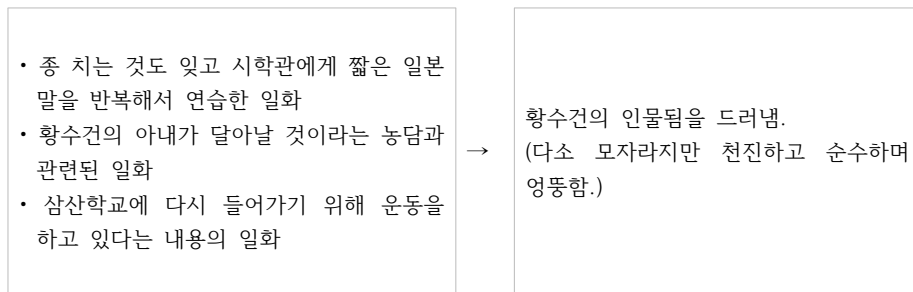
■ 등장인물



■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

서술자와 서술 방식	• 1인칭 관찰자인 '나'가 등장하여 주인공 황수건의 대화와 행동을 독자들에게 전달함. •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황수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함.
↓	
효과	• 인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 • 소외된 인물에게 연민을 보이는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 주제 의식을 읽어들 수 있음. • 모자란 인물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비판함.

■ 황수건과 관련된 우스운 일화들



1-(2) 달밤 (홍계월전)

■ 황수건이 겪는 주요 사건들

- 학교 급사 자리에서 쫓겨남.
-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 해고됨.
- 참외 장사에 실패함.
- 아내가 가출함.
- 포도원 주인에게 곤욕을 치름.

→

황수건의
연이은 실패

→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물임을
부각시킴.

■ '달밤'의 역할과 문학적 효과

- 아름답게 비치는 달빛이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함.
- 황수건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이 느껴짐.
- 달밤을 배경으로 희화적인 성격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하여 비극성을 반감시켜 줌.

↓

- 이와 대비되는 주인공 황수건의 초라한 뒷모습을 통해 인물의 좌절과 상처를 드러냄.
- 소외된 인물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투영됨.
- 작품 전체에 슬픔과 비애가 느껴지지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막아 줌.

■ <달밤>에 나타난 문제의식

- 일제 강점기의 각박한 현실이 암시되어 시대적 고통을 느낄 수 있음.
- 참담한 현실의 묘사보다는 상황에 대응해 가는 인물을 통해 사회 속의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제시함.
-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의 세태에 대한 문제를 느끼게 함.

홍계월전_작자 미상

■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국문 소설, 여성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성격	전기적(傳奇的), 우연적, 영웅적, 일대기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중국 명나라
제재	계월의 수난과 극복
주제	여성 영웅의 수난과 극복,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함. ② 영웅 소설의 서사 구조를 지님. ③ 여성의 봉건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담겨 있음.

■ 작품의 구성

발단	홍무의 딸로 태어난 계월은 장사랑의 난으로 다섯 살 되던 해에 부모와 헤어짐.
전개	여공에 의해 구조된 계월은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성장한 후,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헤어졌던 부모와도 만남.
위기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나 천자가 계월을 용서하고 보국과 혼인할 것을 명함.
절정	계월이 보국과 혼인하게 되나, 계월이 무례한 보국의 애첩을 죽인 일로 보국과 계월이 불화를 겪음.
결말	전쟁 중 위기에 처한 보국과 천자를 구한 계월은 대사마대장군에 봉해지고,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림.

■ 등장인물

- 홍계월**
 -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임.
 - 남성들과의 경쟁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
- 여보국**
 - 홍계월의 남편으로, 어릴 때부터 홍계월과 함께 무술과 병법을 익힘.
 - 남존여비 사상을 가진 권위적인 인물임.

■ <홍계월전>에 나타난 영웅의 일대기 구조

고귀한 혈통	명문거족인 이부시랑 홍무의 딸로 태어남.
비정상적 출생	어머니 양씨가 선녀 꿈을 꾸고 계월을 잉태함.
비범한 능력	어릴 적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짐.
유년기의 위기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짐.
구출·양육	여공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평국으로 개명. 남장하고 보국과 함께 길러짐.
성장 후의 위기	· 국란이 잦음. · 남장 사실이 발각됨. · 보국의 애첩 영춘으로 인해 보국과 갈등을 겪음.
고난 극복과 행복한 결말	· 계월이 출정하여 적을 물리침. · 천자가 계월이 남자 행세를 한 것을 용서함. · 보국이 계월이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됨. ·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림.

■ <홍계월전>의 문학사적 의의

- ① 여성 영웅 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19세기 말에 창작되어 20세기 중반까지 읽히며 영웅 소설과 여성 소설의 맥을 이었음.
- ②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보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등장함.
- ③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권위를 여성에게 부여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여성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여성들에게 통쾌한 해방감을 줌과 동시에 여권 신장, 여성 출세, 남녀평등 사상의 정립에 기여함.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④“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 하였다.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 하는 술 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 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 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짹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사…….”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 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럼쇼,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가…….”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그럼쇼?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쇼.”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히죽거리며,

“뭘입쇼, 이게 제 업인덱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중략>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겠쇼? 아,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 올시다. 오늘 밤만 자연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 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렇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 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쫓러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⑤“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그는, /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치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맡았나 봅시다.” /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함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중략>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쇼?”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장사를 할 턱덱쇼.”

한다.

“무슨 장사?”

⑥“아, 방학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겠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학교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님들보다 낫게 치는덱쇼.” /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 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 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 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④ 그의 우둔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복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깎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끼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묵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카…… 카…….”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 하고 알은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 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핵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금촌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황수건과 그의 아내는 부부 금실이 좋지 않았다.
- ②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황수건을 만났다.
- ③ 황수건은 과거에 삼산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 ④ 황수건은 합비를 입지 않은 채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다.
- 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황수건의 사정을 알게 된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모적 특징을 통해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나’가 황수건을 보고 자신의 느낌을 드러낸 말이다.
- ② ㉡ : ‘나’가 즐겁고 기대에 차서 나오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③ ㉢ : 황수건이 지금까지 해본 일들을 열거하며 장사 수완을 자랑하고 있다.
- ④ ㉣ : ‘나’가 황수건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배경 묘사를 통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4. 윗글과 <보기>의 시점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 남매의 음산 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에게는 으레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 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 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의 오년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이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이 폐가와 같은 짙 앞에 우두커니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집에도 대체 사람이 살고 있을까? 아이들 만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집이 연상되었다. 금시 대가리에 빨이 돋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들고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 손창섭, 「비 오는 날」중에서

- ① 윗글에 비해 <보기>는 사건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 ② <보기>에 비해 윗글의 서술자는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여지가 많다.
- ③ 윗글에 비해 <보기>는 서술자가 주인공의 내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윗글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나, <보기>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한다.
- ⑤ 윗글과 <보기>의 서술자 모두 주동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을 서술할 수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태준은 부정적인 세태 속에서 소외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부족하지만 순진한 삶을 살아가는 소외된 인물들 또한 각자의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한 작품을 많이 썼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의 삶을 재연하여 따사로운 인정의 세계로 이끌려고 한다. 이태준의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이들을 내려다보며 동정하기보다는 그들과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 ① 새 배달부와 '나'의 대화 내용을 통해 주인공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 ② 자신의 속내를 숨김없이 얘기하는 황수건의 모습에서 부족하지만 순진한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③ 황수건이 원배달부가 될 거라는 소식에 즐거워하는 '나'를 통해 작가가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지.
- ④ 황수건의 먹살을 다짜고짜 끌고 나가는 포도 주인의 모습에서 부족한 자를 멸시하는 부정적인 세태를 확인할 수 있어.
- ⑤ 황수건에게 참의 장사 밀전을 대주는 '나'를 통해 소외된 이들을 따사로운 인정의 세계로 이끌려는 작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사대문 안에 살다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여기에서 신문을 배달하는 황수건을 만난다. 그는 '나'를 허물없이 대하면서 가족 이야기, 과거에 급사*로 일하다 쫓겨난 이야기, 정식 배달원이 되고 싶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일에도 실속 없이 참견한다. 아내는 우둔한 그와 말을 주고받겠다고 핀잔을 주지만 '나'는 순박한 성격을 지닌 그가 마음에 든다. 이후 황수건은 정식 배달원이 될 것이라고 자랑하지만 얼마 후 '나'는 그가 보조 배달원 자리마저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겹쇼?” /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기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읍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잘 오우, 왜 그러우?” / 한즉 또,
 “늦지도 않굽쇼, 일즉이 제때마다 꼬옥 읍쇼?” / 한다.
 ㉔“당신이 돌을 때보다 세 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 꼭 잘 오우.”
 하니 ㉔그는 머리를 벽적벽적 긁으면서, /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낸다.
 “그런뎡쇼, 선생님?” / “왜 그러우?”
 “삼산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계 생겼습쇼?”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쇼.”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불량굽쇼, 운동을 합쇼.” /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파수꾼_이강백

■ 핵심 정리

갈래	희곡, 단막극, 풍자극
성격	우화적, 풍자적, 교훈적, 상징적
배경	어느 황야에 있는 망루
제재	권력의 위선, 이리 떼의 진실
주제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고,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 구조 비판
특징	① 상징적인 소재와 인물을 등장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작품의 이면에 숨겨서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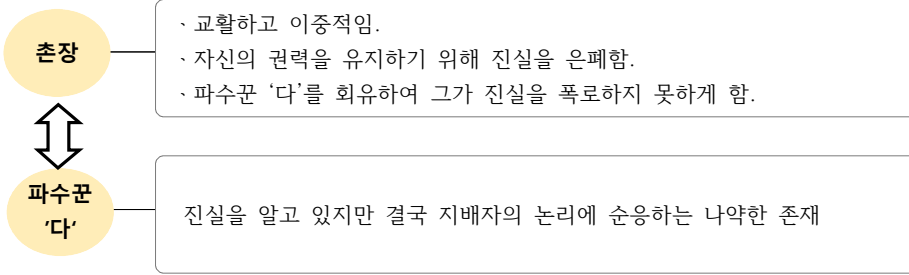
■ 작품의 구성

발단	망루 너머 황야에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편지를 받고 촌장이 망루로 찾아온다.
전개	촌장은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인정한다.
절정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하나, 촌장은 이를 내일 알리자고 회유한다.
하강	파수꾼 '다'는 회유당하여 촌장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대단원	파수꾼 '다'는 거짓말을 한 뒤 결국 망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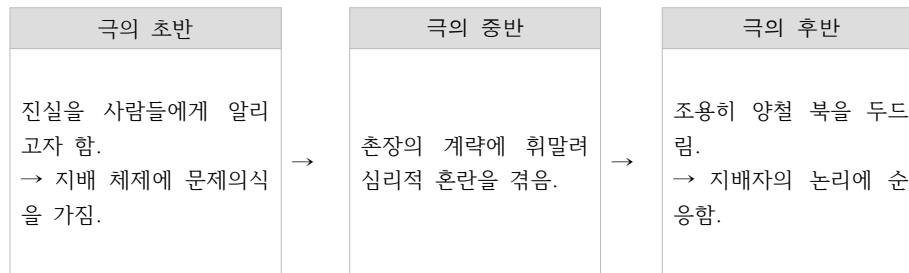
■ 인물의 성격과 특징

촌장	진실을 왜곡하여 권력을 누리고 마을을 지배하는 인물
파수꾼 '다'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지만 끝내 권력에 굴복하는 나약한 인물
파수꾼 '가', '나'	거짓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름으로써 거짓이 유지되는 것에 기여하는 수동적인 인물들
마을 사람들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촌장에게 기만당한 채 살아가는 인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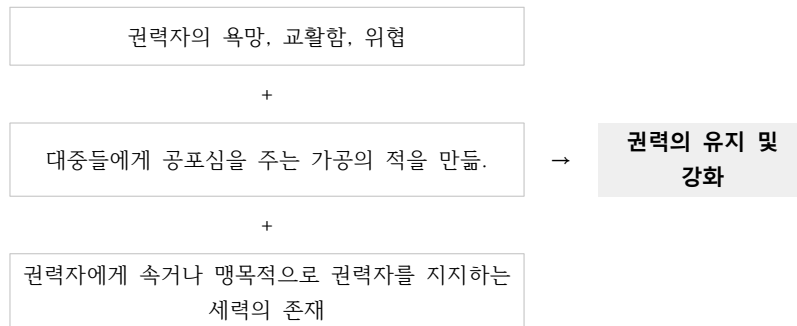
■ 갈등을 겪는 두 인물



■ 파수꾼 '다'의 심리 변화



■ 총장의 권력이 유지되는 이유



■ 관객의 참여

'마을 사람들'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이 되어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함.•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흥미를 유발함.• 관객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됨.
-----------	--

■ 표현상의 특징

우화적 기법	'양치기 소년과 이리' 우화를 활용하여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당대 권력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
상징성	상징성이 강한 인물, 소재, 대사를 활용하여 극적 효과를 획득함.

■ 소재의 상징성

이리 떼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적, 권력 유지를 위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단
흰 구름	진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상
망루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차단하고, 그들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제도
딸기	부정한 권력으로 얻은 대가, 권력을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특권
양철 북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도구
팻말	숨겨진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

■ 작품의 두 가지 아이러니

- ① 들판 너머에는 흰 구름만 있을 뿐인데도 허구의 이리 떼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마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아이러니
- ②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가 촌장의 교묘한 말에 설득당하여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게 되는 아이러니

마이 리틀 히어로_안호경 각본, 김성훈 연출

■ 핵심 정리

갈래	시나리오
성격	현실 비판적, 교훈적
제재	음악 감독과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우정
주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세상의 편견에 맞서 끝까지 도전하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줌. ②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

■ 등장인물

유일한

· 학력 위조, 거짓말을 하는 등 과거에는 허세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음.
· 영광을 만나며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진정한 열정을 되찾으려는 의지를 드러냄.

영광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문화 가정의 소년으로, 노래 실력이 뛰어나. 결승전에서 승리하여 뮤지컬의 주인공이 됨.

* 구 상무 : 영광이 뮤지컬 주인공으로 발탁되지 못하게 막는 인물. 우리 사회에 가득한 편견과 차별을 상징함.

■ <마이 리틀 히어로>의 의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비판하며 그 아이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각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함을 알리고자 함.

* 비슷한 주제를 담은 작품 : 김려령, 《완득이》(창비, 2008)

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리며 마을에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어느 날 '다'는 처음부터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망루로 보급품을 날라 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낸다.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 본 운반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나 : 아침 식사하셨나?

다 : 지금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나 : 무얼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애,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음식 담긴 접시를 다에게 가져가 턱 밑에 받쳐준다.) 네 얼굴이 핏색하다. 몹시 아프니?

다 : 파수꾼님…….

나 : 응?

다 :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나 : 오호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요 겁쟁이, 우리 양철 북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 떼가 덜 무서워질 거야.

다 : 양철 북을 쳐요?

나 :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A] 다 :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 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 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 떼가 습격해 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 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그걸 향해 망루 위의 파수꾼은 "이리 떼다!" 외쳤습니다. 세 번이나요. 세 번, 저는 망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 떼라곤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나 : 얘야, 난 네 맘을 안다. 넌 망루 위엔 올라가고 싶었는지? 이리가 무서웠구.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쓸쓸한 곳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중략>

가 :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다 :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나 : 보렴.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 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다 :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나 :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다 :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 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저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B]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중략>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 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다 :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 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오래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뒷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중략>

촌장 : 야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허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몰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 살인이라고요?

촌장 :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 아니에요, 그건!

촌장 :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지?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하게) 얘,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 물론 약속하지.

다 : 정말이죠, 정말?

촌장 :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중략>

나 :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 마을 사람들요?

[C] 촌장 :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중략>

[D]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촌장 :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하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 까진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을 물어 뜯으려 옵니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나 :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촌장 :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

나 : 아냐,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 본 거야. 난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촌장 : 얘,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다 : …… 네?

촌장 : 마을엔 오지 마라.

다 : (침묵)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E] 촌장 :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었다.

사이.

촌장 : ……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사이.

촌장 : 그럼, 잘 있거라.

나 : 가시려고요, 촌장님?

촌장 :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나 :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덧도 좀 살퍼볼 겸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 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망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떼다' 외친다.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 이강백, 「파수꾼」

금촌고등학교 (경기)

1.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사건은 '㉠진실의 은폐 - ㉡은폐된 진실의 폭로 - ㉢진실의 은폐'의 과정에 따라 전개된다.

- ① ㉠에서 '파수꾼 나'는 진실이 은폐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군.
- ② ㉡에서 '파수꾼 다'는 '식량 운반인'을 설득하여 진실을 폭로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③ ㉢에서 ㉡로 넘어가기 위해 '촌장'은 마을의 질서 유지를 내세워 '파수꾼 다'의 반성을 유도하고 있군.
- ④ ㉢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은 ㉠와 다르군.
- ⑤ ㉢에서 '파수꾼 다'는 지배자인 '촌장'의 논리에 순응하게 되었군.

금촌고등학교 (경기)

2. <보기>를 고려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권위주의에 의해 통치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국가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권력자들은 하수인을 통해 정보를 조작하는 기관을 만들어 냈고, 외부 세력이 침입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배포하여 국민을 위협함으로써 국민이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의심하는 지식인이나 권력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위협하거나 회유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고자 하였다.

- ① 뒷글은 1970년대 독재 정권 체제를 간접적으로 고발하는 우의적·우화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촌장'은 거짓된 안보 정책을 일삼았던 위선적인 권력자를 상징한다.
- ③ '파수꾼 나'는 독재 권력에 협조적이었던 권력의 하수인을 상징한다.
- ④ '마을 사람들'은 거짓 정보에 기만당하여 살아가는 대다수의 민중을 상징한다.
- ⑤ '파수꾼 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거짓 정보를 의심하지만 권력자의 위협으로 진실을 찾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을 상징한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3. 뒷글을 <보기>의 시어와 관련지어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 그걸 하늘로 알고
인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 ㉣최 향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 인생을 살아갔다.

㉤답아라, 사람들아 / 네 마음 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 네 머리 덮은 최 향아리.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① ㉠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의미하므로 뒷글에서 '흰 구름'과 연관된다.
- ② ㉡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뒷글에서 '마을 사람들'과 연관된다.
- ③ ㉢는 거짓을 의미하므로 뒷글에서 '이리 떼'와 연관된다.
- ④ ㉣는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뒷글에서 '촌장'의 역할과 연관된다.
- ⑤ ㉤은 진실을 깨닫기 위한 행동이므로 뒷글에서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행위와 연관된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4. 지문의 [A]~[E]중 <보기>와 관련된 희곡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은?

<보기>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현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극의 전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을 무대 안으로 끌어들어야 한다. 희곡에서는 이러한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활용한다.

- ① [A] ② [B] ③ [C]
- ④ [D] ⑤ [E]

금촌고등학교 (경기)

5.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을 영화화하기 위해 회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주요 시나리오 용어	
E. (Effect)	효과음
F.I (Fade-in)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는 일
F.O (Fade-out)	화면이 처음에 밝았다가 점차 어두워지는 일
C.U. (Close-up)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
O.L. (Over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NAR. (Narration)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場外)에서 해설하는 일, 또는 그런 해설

- ① ㉠부분은 '파수꾼 다'의 얼굴로 C.U.하여 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부각해야겠군.
- ② ㉡부분은 이전 장면인 '파수꾼 나'의 행동을 보여주는 화면에서 '파수꾼 가'를 비추는 화면으로 O.L.해야겠군.
- ③ ㉢부분은 사건의 진행을 관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NAR.으로 깔아야겠군.
- ④ ㉣부분은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센 바람 소리를 E.로 깔아야겠군.
- ⑤ ㉤부분은 막이 끝나는 부분이므로 F.O.처리를 해야겠군.

금촌고등학교 (경기)

6. 윗글과 <보기>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p>“급장이 부르면 다야? 급장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서 대령해야 하느냐고?”</p> <p>그래도 나는 서울내기다운 강단으로 마지막 저항을 해 보았다. 그 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 댔다.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는 듯, 그때껏 나를 울려대던 두 녀석과 엄석대까지를 포함한 선 몇 명 모두가 흥소(哄笑)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내가 한 말 어디가 그들을 웃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미화부장이라는 녀석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p>

“그럼, 급장이 부르는데 안 가? 어디 학교야? 어디서 왔어? 너희 반에는 급장도 없었어?”

그런데 그 무슨 어이없는 의식의 굴절이었을까. 나는 문득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느낌. 특히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는데 뻔대고 있었던 것과 흡사한 착각 이 일었다. 어쩌면 그 때까지도 멈춰지지 않고 있던 아이들의 왁자한 웃음에 압도된, 굴종에의 미필적 고의* 섞인 착각이었던지도 모르겠다.

* 미필적 고의 :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中

- ① 윗글은 극 갈래이고, <보기>는 서사 갈래이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 ③ 윗글과 <보기> 모두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④ 윗글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기>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주로 '해설자'에 의해 전달되고 있으며, <보기>는 '나'라는 '1인칭 서술자'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통곡할 만한 자리_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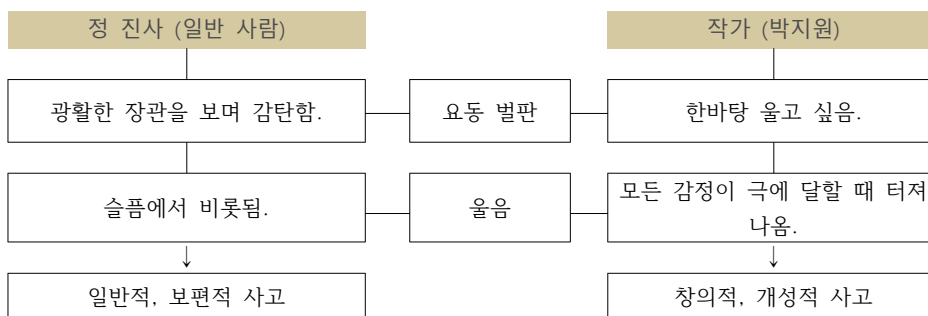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기행 수필
성격	비유적, 교훈적, 사색적, 체험적
제재	광활한 요동 별판
주제	광활한 요동 별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특징	①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작가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임. ② 문답에 의한 구성 방식을 통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③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로 대상을 실감 나게 표현함.

■ 작품의 구성

기	글쓴이가 요동 별판을 보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함.	
승	문	정 진사가 글쓴이에게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한 까닭을 물음.
	답	사람은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의 칠정(七情), 즉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답함.
전	문	정 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을 받아 울어야 하느냐고 물음.
	답	갓난아이의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된다고 답함.
결	요동 별판의 광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지는 여정과 백탑에 대한 감상을 밝힘.	

■ 대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



1-(4) 통곡할 만한 자리 (반 통의 물)

■ 비유적 표현의 의미

갓난아이(보조 관념)	글쓴이 (원관념)	의미
어미 태에서 나옴.	좁은 조선에서 나와 광활한 별판을 봄.	폐쇄적인 곳에서 넓은 세상으로 나와 새로운 문물을 접함.
한없이 울어 댐.	통곡할 만함.	새로운 것을 접한 기쁨이 극에 달해 통곡할 만함.

■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

문답의 방식	물음과 대답의 형식을 반복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함.
참신한 비유와 예시	글쓴이 자신을 갓난아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갓난아이의 울음을 예로 들어 통곡의 의미를 설명함.
새로운 발상	드넓은 요동 별판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감탄의 대상)을 깨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새로운 해석(통곡할 만한 자리)을 제시함.

■ 박지원의 가치관

박지원은 조선의 낙후된 현실과 혼탁한 정치 상황, 양반 사회의 타락상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북학론을 통해 청나라의 앞선 문물제도 및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으며,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이라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연암에게 요동 별판은 개방적이고 다양한 선진 문물이 있는 공간이자 고루한 인습이 존재하지 않는 해방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반 통의 물_나희덕

■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사색적, 교훈적, 일상적
제재	텃밭을 가꾸는 일
주제	·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소중함
특징	① 일상적인 사건으로부터 인생의 깨달음을 도출함. ② 주제를 은유적, 설의적으로 제시함.

■ 작가가 얻은 교훈

교훈을 얻게 된 사건	· 한쪽 몸이 마비된 할아버지께서 텃밭에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됨. · 물통이 가는 길에 쏟아져 물이 반밖에 남지 않음.
-------------	---



생명을 길러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음.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1-(4) 통곡할 만한 자리 (반 통의 물)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월 초8일 갑신일

맑다.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 냉정(冷井)에서 조반을 먹었다. 십여 리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泰卜)이란 놈이 국궁(鞫躬)을 하고는 말 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백탑(白塔)이 ㉠현신(現身)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한다. 태복은 정 진사의 ㉡마두(馬頭)이다.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안광(眼光)이 어질어질하더니 홀연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제라는 것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했더니 정 진사가,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그렇긴 하나, 글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약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七情)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 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 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 만한 결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事理)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 대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져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한나라 때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 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

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정 진사는,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좇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 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나는,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꼭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 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꽂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갓난아이의 본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A]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胎中)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정을 다 크게 씻어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봄에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황해도 장연(長淵)의 금모래사장에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네. 지금 요동 들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 일천이백 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이, 하늘 끝과 땅끝이 마치 아교로 붙인 듯, 실로 께맨 듯하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 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高麗叢), 아미장(阿彌庄)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주부 조달동, 변군, 박래원, 정 진사, 겸인(僦人), 이학량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변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열 배쯤 되니 따로 요동 여행을 써 놓았다.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그 제조의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 별판과 맞먹을 만하다. 따로 백탑에 대해 적은 <백탑기(白塔記)>가 뒤편에 있다.

-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계남고등학교 (경기)

1.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태복은 백탑이 안 보인다고 알렸다.

1-(4) 통곡할 만한 자리

- ② 백택이 있는 곳은 시야가 꼭 막힌 곳이었다.
- ③ 지극한 통곡 소리는 아무 장소에서 나오지 않는다.
- ④ 금강산 비로봉과 황해도 장연은 울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 ⑤ 사람들은 초상집에서 자연스럽게 '아이고'하며 소리 내어 운다.

계남고등학교 (경기)

2. 위 글의 ㉠~㉣의 뜻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눈 앞에 새로운 것을 찾아 냄
- ② ㉡ :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말아보단 사람
- ③ ㉢ : 눈의 정기
- ④ ㉣ : 일의 이치
- ⑤ ㉤ : 아이를 배고 있는 동안

계남고등학교 (경기)

3. 위 글과 <보기>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한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말아서 처리하는 의미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그 당시에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재자로 보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 변천까지도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우 새롭게 변모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보았다.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 해와 달, 사계절, 추위와 더위, 바람 등의 모든 자연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병들게 할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부자로 만들 수도 없으며, 길흉화복을 줄 수도 없다. 사람들이 치세(治世)와 난세(亂世)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일 뿐이다. 치세든 난세든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과는 무관하다. 사람이 받게 되는 재앙과 복의 원인도 모두 자신에게 있을 뿐 불변의 질서를 갖고 있는 하늘에 있지 않다. (2018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지문)

- ① <보기>는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 ② 위 글은 문제를 제기한 후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③ <보기>는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④ 위 글과 <보기> 모두 상반된 입장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하여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위 글과 <보기> 모두 기존의 관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고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계남고등학교 (경기)

4. 다음은 위 글의 작가 '박지원'을 인터뷰한 것이다. ㉠에 들어갈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자 : 청나라 사신단으로 열하(熱河)까지 갔을 때 쓴 일기를 잘 보았습니다. 7월 8일 일기에서 요동 별판을 보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지원 : 장관(壯觀)을 보면 감탄하여 눈물이 나기 마련이지요.
- 기자 : 드넓은 요동별판을 보고 감탄하였다면 기쁘고 즐거워야하는데, 왜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까? 눈물은 슬플 때 나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_____ ㉠ _____
- 기자 :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신 거였군요.

- ① 이 세상에 태어난 분노와 한이 가슴에 짝 찬 듯하여 통곡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
- ② 요동의 광활한 별판을 보니 우리 조선에는 그런 넓은 땅이 없는 것이 슬퍼서 눈물이 날 만하네.
- ③ 천고의 영웅들과 미인들이 이곳에서 흘렸을 눈물을 생각하니 그들의 삶이 안타까워 눈물이 날 것 같았네.
- ④ 이런 넓은 별판을 본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없을 터이니, 세월의 무상함이 아쉬워 눈물이 날 만하네.
- ⑤ 인간의 칠정(七情)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것이네. 나는 새롭고 발전된 청나라로 들어선 것이 감격스러워서 통곡하고 싶었던 것이네.

1-(4) 통곡할 만한 자리

계남고등학교 (경기)

5.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요동 별판을 보고 느낀 기쁨을 갓난아이가 넓은 세상에 나와 기뻐 우는 것에 참신하게 비유하고 있다.

ㄴ. '갓난아이'를 원관념, '글쓴이'를 보조 관념으로 제시하였다.

ㄷ. 글쓴이는 갓난아이의 울음이 희(喜), 락(樂)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ㄹ. 일반사람들이 갓난아이의 울음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슬퍼서 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갓난아이의 본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계남고등학교 (경기)

6. 다음을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박지원(朴趾源) :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실학자, 정조 4년(1780)에 청나라에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북학론을 주장하였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하였다.
- 북학파(北學派) : 조선 영조·정조 때에 북학을 주장한 실학의 한파. 청나라의 앞선 문물제도 및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학파로, 특히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에 관심을 쏟았다.
- <열하일기(熱河日記)> : 조선 정조 4년(1780)에 박지원이 지은 책.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과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였다.

- ① 당시 일반 사람들의 어리숙한 인식 수준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② 상공업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경계하고 있다.
- ③ 북학(北學)을 실현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조선 사회를 비난하며 새로운 이상향을 찾고 있다.
- ④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여 조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⑤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중국을 무작정 추종하는 것으로 보아 박지원의 봉건적 사상을 알 수 있다.

㉒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7월 초8일 갑신일. 맑다.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㉑ 삼류하(三流河)를 건너 냉정(冷井)에서 조반을 먹었다. 십여리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泰卜)이란 농이 국궁(鞠躬)을 하고는 말 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A)“백담(白塔)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한다. 태복은 정 진사의 마두이다.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담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홀연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㉒“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했더니 정 진사가,

(나)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특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문기에 나는,

“그렇긴 하나, 글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단지 ㉓인간의 칠정(七情)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 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 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 만한 걸세. ㉔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이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 대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져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한나라 때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 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

1-(1) 슬픔이 기쁨에게

1.④ 2.④ 3.② 4.③ 5.① 6.② 7.⑤ 8.① 9.'동사자'는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10.③ 11.④ 12.(1)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2) 일반적으로 슬픔은 회피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고, 기쁨은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작가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는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슬픔은 이타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13.③ 14.② 15.⑤ 16.⑤ 17.① 18.⑤ 19.② 20.⑤ 21.겨울밤 거리, (살아온)추위, 어둠, 함박눈 22.④ 23.② 24.(1)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 (2) 남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25.③ 26.⑤ 27.② 28.가진 자에게는 행복을, 소외된 이에게는 고통을 주는 존재이다. 29.① 30.⑤ 31.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와 같이 '나'음을 반복한다. '주겠다', '멈추겠다' 등과 같이 어미 '-겠다'를 반복한다. 32.⑤ 33.⑤ 34.⑤ 35.③ 36. ③ 37.① 38.④ 39.⑤ 40.④ 41.⑤ 42.⑤ 43.④ 44.④ 45.① 46.④ 47.② 48.④ 49.㉠ 함박눈 ㉡ 봄눈 ㉢ 슬픔 ㉣ 기다림 50.④ 51.⑤ 52.③ 53.①② 54.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슬픔은 회피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고, 기쁨은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감정이다. 하지만 작가의 문학적 인식으로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슬픔은 이타적인 존재이다. 55.⑤ 56.③ 57.④ 58.(1)역설법 (2)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1-(2) 말밤 (홍계월전)

1.① 2.② 3.③ 4.② 5.④ 6.③ 7.② 8.⑤ 9.④ 10.⑤ 11.황수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과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행동을 통해 '나'가 황수건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12.① 13.④ 14. ⑤ 15.③ 16.④ 17.② 18.원배달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모습에서 황수건의 소박하고 순진한 성품을 알 수 있다. 19.⑤ 20.② 21.④ 22.② 23.⑤ 24.② 25.① 26.(1)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이다. (2) 여성 영웅의 수난과 극복을 통해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27.① 28.③ 29.③ 30.② 31.⑤ 32.④ 33.③ 34.① 35.(A) 돈 삼원 (B) 참외 세 개, 다섯 송이의 포도 36.⑤ 37.⑤ 38.③ 39.④ 40.② 41.③ 42.① 43.윗글의 서술자는 1인칭 관찰자이고, <보기>의 서

술자는 1인칭 주인공이다. 44.② 45.① 46.⑤ 47.③ 48.① 49.② 50.황수건의 불우한 삶과 대비되어 서정적,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결말이 비극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51.⑤ 52.③ 53.식민지 근대의 그늘과 변두리 인생의 고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54.③ 55.② 56.⑤ 57.② 58. ① 59.⑤

1-(3) 파수꾼 (마이 리틀 히어로)

1.⑤ 2.⑤ 3.④ 4.③ 5.③ 6.⑤ 7.⑤ 8.④ 9.③ 10.③ 11.(1)희곡은 현재 시제로 서술된다. (2)'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12.③ 13.② 14.⑤ 15.① 16.⑤ 17.(1)㉠: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2)'춘장'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공포심을 조성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위선적인 권력자를 상징한다 18.③ 19.④ 20.① 21.② 22.④ 23.② 24.③ 25.③ 26.⑤ 27.④ 28.④ 29. ① 30.① 31.② 32.(1)㉠ (2)㉡ 33.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한다,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34.⑤ 35.③ 36.④ 37.(1)사건과 인물을 통해 갈등을 제시한다. (2)배우들의 연기에 의한 공연을 전제로 한다, 대사와 지시문으로 되어 있다,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있다. 38.(1)반어법 (2)'춘장'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힌 것 때문에 심리가 불편하다. 39.㉠ 딸기 ㉡ 팻말 ㉢ 양철 북 40.⑤ 41.③ 42.② 43.⑤ 44.④ 45.④ 46.⑤ 47.③ 48.② 49. (1) 우화 (2)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였다. 50.⑤ 51.① 52.② 53.(1) 마을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감추었던 진실을 뜻한다. 54.⑤ 55.③ 56.④ 57.③ 58.①

1-(4) 통곡할 만한 자리

1.③ 2.① 3.⑤ 4.⑤ 5.⑤ 6.④ 7.③ 8.㉠ 백택이 곧 보인다 ㉡ 의인화 ㉢ 주객전도 ㉣ 태복 9.⑤ 10.③ 11. ① 12.⑤ 13.④ 14.① 15.④ 16.① 17.④ 18.④ 19.③ 20.즐거움, 기쁨 21. (C): 좁은 조선 (D): 요동 별판(중국, 청나라) 22.③ 23.⑤ 24.진정한 울음은 지극한 상황을 겪어야 나올 수 있다. 25.캄캄하고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으로 나와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 26. ② 27.⑤ 28.① 29.① 30.③

2-(1) 삶을 바꾼 만남 (독도, 숨은 자원의 보고)